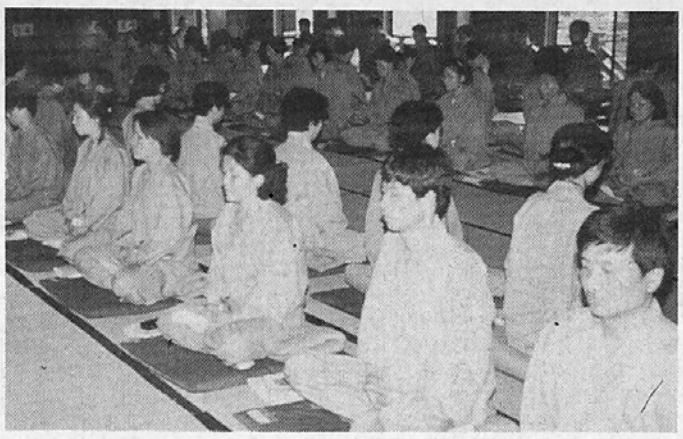
'4박5일의 출가' 사찰 수련회 지상중계

'참나 찾기' 배운 값진 일정

새벽예불·참선·바루공양하며 새로 발심
외국인·타종교인도 참여…프로 다양화 필요



◇ 정좌하고 앉은 수련생들·참삶의 의미를 찾는 화두를 챙기고 있다.

여름을 맞아 각종 사찰수련회가 전국 곳곳에서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7월 21일 BBS방송 여름특집 '참나를 찾아서'는 수행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송광사 여름수련회 현장을 소개해 불자들의 구도열기를 실감케 했다.

일상의 틀을 박차고 나를 찾기위해 구도의 길에 나선 사람들때문이다. 여름에 사찰을 찾아 자신을 가다듬는 사람들은 생각밖으로 그 수가 많다.

신도회나 신행단체별로 떠나는 크고 작은 수련회 말고도 오직 부처님제자라는 공통성 하나로 전통사찰을 찾는 사람들은 3~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수련회를 찾는 사람들도 학생, 직장인, 택시운전사, 주부를 비롯 불교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외국인과 타종교인까지 각양각색이며 연령층 또한 20대 젊은이에서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생활에 찌든 자신을 되돌아 보고, 그동안 품었던 불교에의 호기심을 확인하기 위해 수련회를 찾는다.

수련회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이 돌아가야할 근본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 4박5일간의 출가생활에 몸을 맡기는 이유다.

"가장 순수하게 불자로서 불교를 올바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참가했다"는 한 불자는 "자기라는 문제에 부딪혀 그 해결을 종교적 수행에 의지해 보려는 성향들과 종교에 상관없이 수행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이들은 한번 와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송광사여름수련회는 '출가 4박5일'의 대명사를 탄생시킨 곳으로 그 명성을 높은 경쟁률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다. 참선수행과 바루공양, 아침저녁으로 108배, 묵언수행, 예불문강의, 불타의생애, 보조스님의 수심결, 입적하신 전 방장스님이신 구산스님의 화두법문등을 짬짜게 진행해 나간다.

사찰나름의 고유한 특성과 수행풍토도 많은 불자들의 간절한 발심을 내게한다.

불보사찰 통도사는 금과옥조의 말씀으로 수련생들을 사로잡고, 법보사찰 해인사는 예전의 절수행에 이어 최근에는 독경·사경수행으로 불자들을 이끌고 있다. 특히 독경과 사경의 경우는 수련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일상에 돌아가서도 스스로 수행을 지속토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직지사, 월정사, 대둔사등 전국 20여개 사찰에서 나름의 수련회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에서 행해지는 수련회의 방식이 획일적이고 비슷해 자칫 지루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다.

법사스님들은 "앞으로 오후불식과 울력시간을 마련하는 등 수행을 실생활속에서 행하도록 일깨워줄것"임을 밝히며 사찰의 영상시설도 갖춰 효과적인 수련회를 꾸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불자들에게 있어 수좌스님들의 수행생활을 몸소 느껴 체험하고 자기안의 주인공 불성을 깨닫는 것은 충분히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수련회를 마친 한 불자는 "정좌하고 앉아 하던 '이뭐꼬'화두를 이제야 조금 알것 같은데 벌써 돌아가야 할 시간이됐어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수련회에서 배운것들을 잊지않고 좌선생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많은 불자들이 불과 며칠사이에 벼락치듯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수련회 기간동안 찾아내고 간직했던 큰 서원을 스스로 검증하고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자리에 다시 더 큰 원력을 세우는 것이 평생의 화두로 불자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이은자 기자

"여름휴가를 불교 박물관에서…"

박 물 관	특 징	개 관 정 보	위 치	전 화 번 호
법주사	불교관련 유물	연중무휴	충북 보은군 속리산	0433)43-3615
화엄사	〃	〃	전남 구례군 지리산	0664)782-7600
대둔사	〃	〃	전남 대둔산	0633)34-5502~3
통도사	〃	월요일 휴관	경남 양산군 영축산	0523)82-7172
기림사	〃	일·공휴일 개관	경북 경주군 함월산	0561)44-2292
표충사	〃	월요일 휴관	경남 밀양	0527)52-1150
목아박물관	불교 민속관련 유물	화요일·명절 휴관	경기 여주군 강천면	0337)85-9954
불교미술박물관	불교문화와 미술품	월요일 휴관	서울 원서동	02)766-5000
건들바우박물관	민속종교자료	월요일 휴관	대구 대봉동	053)421-6677
청주고인쇄박물관	인쇄역사 한눈에	월요일 휴관	충북 청주시 운천동	0431)69-0556
온양민속박물관	각종 민속자료	연중무휴	충남 온양시 권곡동	0412)42-6001
동진수리민속박물관	수리 농경 민속자료	일·공휴일 휴관	전북 김제시 요천동	0658)547-3121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각종 민속자료	월·공휴일다음날 휴관	광주 북구 용봉동	062)526-2259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 및 자연사자료	명절 휴관	제주시 일도2동	064)22-1588
제주민속박물관	민속 및 풍속자료	연중무휴	제주시 삼양3동	064)55-1976
안동민속박물관	민속 및 생활문화자료	명절, 월요일 휴관	안동시 성곡동	0571)3-0649
대관령박물관	선사유물, 불교미술품등	동절기 휴관	강원 명주 성산	0391)41-4683
호암미술관	보물급 문화재	월요일 휴관	경기 용인 포곡면	0335)30-3551
농업박물관	농경문화관찰	공휴일 휴관	서울 충정로1가	02)397-5673~4
명가김치박물관	김치의 변천사	명절 휴관	서울 삼성동	02)562-1075
삼성출판박물관	출판의 시대사적 정리	일·공휴일 휴관	서울 당산동6가	02)679-4597
디자인박물관	생활용품 중심	월요일 휴관	서울 방배동	02)590-3473
옹기민속박물관	생활용기	공휴일 휴관	서울 쌍문동	02)900-0900
짚풀생활사박물관	농경생활 용품	수·목요일 개관	서울 청담동	02)562-1075
태평양박물관	세계최초의 화장품 박물관	일·공휴일 개관	서울 신대방동	02)832-3486
한국가구박물관	전통 목가구	토·일·공휴일 휴관	서울 성북동	02)766-0168
한국자수박물관	규중 공예품 전문	토·일·공휴일 휴관	서울 논현동	02)515-5114
잡지박물관	구한말부터 잡지 3만여점	일·국경일 휴관	서울 청진동	02)745-9464
호림박물관	호림선생 수집품	월·국경일 휴관	서울 대치동	02)566-8329
홍산박물관	토기전문박물관	월·화요일 휴관	서울 양재동	02)572-7496
한밭교육박물관	각종 교육자료	월·공휴일 휴관	대전 삼성1동	042)626-5393
화폐박물관	화폐의 역사 관람	공휴일 다음날 휴관	대전 유성 가정동	042)421-6677

푸른 물결이 손짓하는 바다도 뒤로한 채 오롯한 자태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간직하고 있는 불교박물관에서 불교문화의 백미를 감상하는 일.

이글거리는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불심을 다시한번 다지며 올여름 휴가를 남다르게 보내기위한 야심찬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 주변에는 불교박물관외에도 생활박물관, 민속박물관 인쇄박물관, 화폐박물관, 김치박물관, 잡지박물관등 이색적인 박물관도 많다. 불교박물관에서 만나는 인자한 부처님의 미소와 각종 박물관의 이색풍경은 지루했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처럼 좋은 계기를 제공해 줄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바로 종합박물관이다. 무더운 여름! 일과성에 그치는 낭비성 휴가보다는 온가족이 함께 가까운 박물관을 찾아 진귀한 유물과의 뜻깊은 만남을 갖고 그것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들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세월의 흔적과 지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박물관에서 우리자신의 근원을 확인하는 일. 올 여름 한번 시도해 보자. 〈은〉

기사넘쳐 '이근후의 건강칼럼' 쉽니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향 원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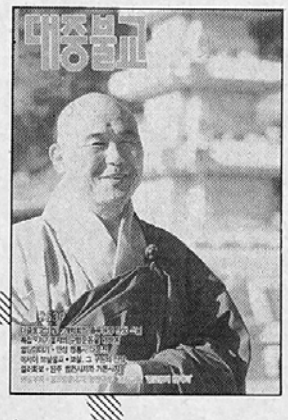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

"월간 〈대중불교〉를 만나십시오"

수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도반은 필요합니다.
〈대중불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법에 입각한 신행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불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불교정론지 〈대중불교〉가
이제 수행운동을 함께 펼쳐갑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과 보람으로
이끌어줄 대중불교!
지금 당장 전화로 신청하세요!

불교방송교재
'경전공부'
'교리강좌'
'불교영어 한마디'를
권말부록으로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월간〈대중불교〉
전화: (02)773-5731, 752-7047 / 팩스 (02)771-6796